



Award Winnig Wines

## 국내 수입되길 기다리는 KWC 2019 금메달 수상 와인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의 수상 리스트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와인들이 많다. KWC의 최근 경향 중 하나는 갈수록 퀄리티 높은 와인들이 출품된다는 것이고, 고르고 고른 옥석들이 수상 리스트에 든다. 아직 국내 수입이 되지 않는 와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이다. 그중 KWC 2019에서 금메달 이상을 수상한 미수입 와인들을 훑어보았다. 지난해 베스트 스페인 레드로 선정된 와인(Alenza Gran Reserva)은 최근 국내 런칭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는 와인들은 지난해 금메달을 수상한 미수입 와인들이다. 이미 퀄리티를 인정받은 이 와인들을 한국 시장에서 만날 날들을 기대해 본다. 글 강은영 사진 장영수

### 애쉬브룩 에스테이트 Ashbrook Estate

1975년 호주 마카렛 리버에 포도밭을 매입한 데빗(Devitt) 일가가 가족 경영으로 이어오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이들은 포도밭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프리미엄 와인 생산에 주력한다. 제임스 할리데이는 애쉬브룩 와이너리에 별 5개를 부여하며, "애쉬브룩의 모든 와인은 우아하며 절제되어있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고 칭찬한 바 있다.



### 1 Ashbrook Estate Cabernet Sauvignon

마카렛 리버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메인으로(약 75%) 한 보르도 블렌드 스타일이다. 손 수확한 포도를 차가운 온도에서 침용시켜 오픈 발효조에서 부드럽게 추출했고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2년간 숙성을 거쳤다. 농밀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 1 Casa Ermelinda Freitas Sauvignon Blanc Verdelho

소비뇽 블랑과 베르델호를 절반씩 블렌딩한 와인이다. 프렌치와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숙성을 거치며, 4개월간 바토나주를 했다. 열대과일 향과 꽃 향이 농밀하며, 나무 향이 적절하게 배어 있다. 경쾌한 산도와 신선한 풍미가 좋은 와인이다.



###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 Casa Ermelinda Freitas

1920년에 포르투갈 세투발의 팔메라(Palmela) 지역에 설립된 와이너리다.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은 약 445ha. 이곳에서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는 29종의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200리터의 와인을 생산한다. 1999년 이후 해외 유명 컴퍼티션에서 1,000여 개가 넘는 메달을 수상할 만큼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 2 Casa Ermelinda Freitas Moscatel Roxo de Setubal Superior

스위트한 포티파이드 와인이다. 9월 말 수확한 모스까델을 다음해 3월까지 침용시켰고, 와인의 절반은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6년간 숙성했다. 호박색을 띠고, 헤이즐넛과 향신료 향이 나며 여운이 길게 이어진다. KWC 2018과 2019 연속 금메달을 수상했다.



### 3 Casa Ermelinda Freitas Vinha do Rosario Syrah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 후 와인의 절반은 프렌치 오크에서 나머지는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4개월간 숙성시킨 시라 와인이다. 잘 익은 블랙베리와 향신료, 바닐라 향이 나며 풍부하고 부드러운 탄닌이 느껴진다.

**칸피나 카살파르네토**  
**Cantina Casalfarneto**

이탈리아 마르케의 앙포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베르디키오 품종을 대표하는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카살파르네토는 이곳에 35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한다. 토니(Togni) 그룹의 소유인 카살파르네토는 현재 파올로 토니(Paolo Togni)가 대표로 와이너리 경영을 맡고 있다.



**1 Casalfarneto Cimaio Marche IGT**

이탈리아 마르케의 베르디키오로 빛은 화이트 와인. 11월 즈음 늦수확한 포도로 만들어 다소 감미가 느껴지고 알코올도 14~14.5% 정도로 높은 편이다. 금빛을 띠는 와인으로 바닐라, 모과, 자두 등 복합적인 향이 느껴지고 구조감이 좋다.

**2 Casalfarneto Crisio Castelli Di Jesi Verdicchio Riserva DOCG Classico**

크리시오는 카살파르네토 에스테이트 옆에 있는 세라 데 콘티(Serra de' Conti)의 포도밭에서 난 베르디키오로 만들었다. 신선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숙성력이 좋아서 출시 후 8~10년까지 거뜬하다.

**레 셀리에르 드 메크네스**  
**Les Celliers de Meknes**

모로코의 옛 수도 메크네스에 위치한 와이너리로 모로코 와인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 위치한 포도밭은 모로코의 첫 AOC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레 셀리에르 드 메크네스는 약 2,00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샤르도네, 까리냥 등을 재배한다.



**1 Chateau Roslane 1er Cru White**

모로코의 레 꼬드 데 라탈라스(Les Coteaux de l'Atlas) 지역의 샤르도네 와인이다. 밝은 골드 빛을 띠는 와인이다. 복숭아, 멜론 등 과일 향과 아카시아 꽃 향이 복합적으로 느껴진다.

**2 Miles from Nowhere Best Blocks Chardonnay**

호주 마가렛 리버의 샤르도네로, 젯산발효를 하고 바토나주를 통해 질감과 풍미를 배가시켰다. 또 오크 배럴에서 6개월간 숙성했다. 복숭아, 살구, 배, 레몬 향이 나며 견과류와 비스킷 풍미가 복합미를 더한다.



**마일즈 프롬 노웨어**  
**Miles from Nowhere**

호주 마가렛 리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프랭클린(Franklin)과 헤더 테이트(Heather Tate)의 손에서 재탄생한 와이너리이다. 이들은 젊고 재능 있는 와인메이커 로리 클리프톤-파크(Rory Clifton-Parks)와 함께 좋은 품질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iles from Nowhere'는 여유를 가지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김슨 와인즈**  
**Gibson Wines**

20여 년간 펜폴즈에서 와인메이커로 경험을 쌓은 롭 김슨(Rob Gibson)이 설립했다. 그의 양조 스타일은 바로사 밸리의 전통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김슨 와인즈는 초기부터 제임스 할리데이로부터 5개의 별을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현재는 바로사 밸리 외에도 이든 밸리, 애들레이드 힐스에 포도밭을 확장하고 총 8개 레인지의 와인을 생산한다.

**1 Gibson Wines Reserve Shiraz**

바로사 밸리 쉬라즈로 와인의 67%는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18개월 숙성했다. 짙은 붉은 빛을 띠는 와인이다. 자두, 바닐라, 스모키한 향이 나며 농밀한 탄닌과 적절한 산도의 밸런스가 좋다. 여운도 길고 숙성력도 좋은 와인이다.

**2 Gibson Wines The Smithy Shiraz Cabernet**

바로사의 쉬라즈와 까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드한 것으로 와인의 60%는 프렌치 오크에서 40%는 아메리칸 오크에서 20개월 숙성했다. 굉장히 풍만하면서도 구조가 좋은 와인으로 과일 캐릭터와 산도의 밸런스가 좋다. 향신료와 다크 초콜릿 풍미도 더해진다.

**1 La Rosa Ossa**

비나 라 로사의 아이콘 와인인 2018년 KWC에서 베스트 칠레 레드로 뽑히기도 했다. 까르메네르 60%에 까베르네 프랑,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 등을 소량 블렌드한 와인이다. 블랙베리, 블루베리, 타바코, 향신료 등 복합적인 풍미가 나고 탄탄한 탄닌감이 느껴진다.



**비나 라 로사**  
**Vina La Rosa**

비나 라 로사의 역사는 18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칠레 광산업을 지휘했던 사업가인 프란시스코 오싸 이 메르카도가 콜차구아 밸리에 매료되어 포도밭을 매입하면서 부터이다. 지금은 이즈마엘 오싸가 와이너리를 경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비나 라 로사는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철학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2 La Rosa Cornellana Red Blend**

비나 라 로사의 또 다른 브랜드 중 하나인 코르넬라나 레드 블렌드 와인이다. 칠레 카차포알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블렌드했다. 과일 풍미가 짙으며 구조감이 좋다.

**3 La Rosa Carmenere**

칠레 카차포알 밸리의 페우모(Peumo) 지역에서 난 까르메네르로 만든 와인이다. 프렌치 오크에서 14개월 숙성했다. 블랙베리, 트러플, 향신료 향이 특징이며 좋은 구조감과 잘 익은 탄닌을 보여준다. KWC 2018, 2019 연속 금메달을 수상했다.



## 플래몽 Plaimont

1979년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지방의 세 마을, 플레장스(Plaisance), 에냥(Aignan), 생몽(Saint Mont)의 1,100명의 생산자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플래몽이란 이름도 세 마을의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토착 포도 품종을 지켜오며 전통적 와인을 만들어 왔다. 플래몽의 몇몇 와인들은 비노파라다이스를 통해 국내 수입되고 있다.



### 1 Plaimont La Madeleine

프랑스 서남부 생몽 지역의 와인으로 따넛, 까베르네 소비뇽, 피냉(Pinenc)을 블렌드했다. 체리와 스파이시한 향이 짙고 질감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풀바디 레드 와인이다. 여운이 길게 이어진다.

## 컴파니아 아그리콜라 도 상귀날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LDA

1926년 아벨 페레이라 다 폰세카(Abel Pereira da Fonseca)가 포르투갈 중부 지역에 설립한 와이너리로, 같은 가문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리스본의 오비도스(Óbidos) 지역에 3개의 에스테이트(Quinta do Sanguinhal, Quinta das Cerejeiras, Quinta de S. Francisco)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와인양조 설비에 투자해 최신 시설을 갖추었다.



### 2 Quinta de S. Francisco Obidos

카스텔라웅, 아라고네스, 포우리가 나시오날을 블렌드한 레드 와인이다. 잘 익은 붉은 과일과 초콜릿, 바닐라 향에 스파이시한 힌트가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질감의 풀바디 와인이다.



## 에어룸 빈야드 Heirloom Vineyards

와인메이킹을 공부하던 엘레나(Elena)와 자르 브룩스(Zar Brooks)가 맥라렌 베일을 방문한 뒤 설립한 와이너리다. 이들은 훌륭한 와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7번의 수확을 경험하였으며, 다음 세대로 와이너리를 넘겨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와인을 양조한다. 현재는 애들레이드 힐스, 바로사 밸리, 쿠나와라에도 포도밭을 확장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1 Heirloom Vineyards A'Lambra Eden Valley Shiraz

에어룸 빈야드가 이든 밸리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밭에서 난 쉬라즈로 만든 와인으로 오픈 발효조에서 발효하고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시켰다. 과일 풍미가 신선하며 향신료 향도 배어있다. 숙성 잠재력도 좋다.

### 2 Heirloom Vineyards McLaren Vale Shiraz

맥라렌 베일의 쉬라즈로 한 번 이상 사용한 적 있는 프렌치 오크와 불가리안 오크에서 16개월 숙성을 거쳤다. 백후추, 초콜릿, 자두, 꽃 등 다채로운 향이 나는 와인이다. 입에서는 블랙베리 풍미가 짙고 부드러운 탄닌이 느껴진다.

## 시스터스 런 Sister's Run

호주 맥라렌 베일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이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이며, 색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와인을 양조하고자 한다. 와인메이커 엘레나는 재능 있는 젊은 와인메이커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시스터스 런은 맥라렌 베일뿐 아니라 이든 밸리에도 포도밭을 확장했다.



### 1 Sister's Run Old Testament Coonawarra Cabernet

호주 쿠나와라의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파워와 우아함이 잘 어우러지는 스타일이다. 잘 익은 블랙베리 향과 은은한 오크 향이 믹스되고, 탄탄한 탄닌과 좋은 구조감을 보여준다.

## 스콜라 사르멘티 Schola Sarmenti

스콜라 사르멘티는 이탈리아 풀리아의 살렌토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조상 대대로 와인을 양조했으나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로산젤라(Rosangela)와 알렉산드로(Alessandro) 형제가 셀러를 재정비하고 첫 수확을 한 뒤부터다. 이들은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의 올드바인을 관리하는 한편 어린 나무를 새로 키워 블렌딩을 시도하고 있다.



### 2 Schola Sarmenti Cubardi IGT Salento Red

포도나무 평균 수령이 65년 정도 된 프리미티보 100%로 빚은 레드 와인이다. 프렌치 오크에서 6개월 숙성했다. 과일 향이 농밀하고, 타바코, 초콜릿, 커피 향이 이어진다. 탄닌은 부드럽고 긴 여운이 느껴지는 풀바디 와인이다.

## 웨이크필드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즈 Wakefield Taylors Family Wines

1969년 빌 테일러(Bill Taylor)와 그의 아들이 함께 클레어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1973년 첫 빈티지인 테일러스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AUSTRALIAN NATIONAL WINE SHOW>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클레어 밸리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또한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협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 1 Wakefield Taylors Jaraman Cabernet Sauvignon

쿠나와라 까베르네 소비뇽 73%에 클레어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27%를 섞었다. 6°C에서 5일간 저온 침용하여 과일 풍미를 섬세하게 살린 와인으로 블랙커런트 향에 이어 은은한 민트 초코와 유칼립투스, 담뱃잎 향이 난다. 여운이 긴 풀바디 와인이다.

### 2 Wakefield Taylors The Pioneer Shiraz

클레어 밸리의 쉬라즈로 KWC 2018, 2019 연속 금메달을 수상했다. 자두, 감초, 가죽, 다크초콜릿, 스모키한 오크 향 등이 복합적으로 올라오며 입 안에서 풍미가 한가득 느껴지는 풀바디 레드 와인이다. W

